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육시설

〈지난호에 이어서〉

6) 출입문

출입문은 관리작업이나 사슴의 이동 및 수송을 위한 기계류의 출입에 충분할 뿐 아니라 사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문의 높이는 약 2m 정도, 폭은 2.5~3m 정도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입문이 될 수 있다. 출입문은 대체로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문을 지지하고 있는 지주대가 견실하지 못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이 뒤틀리거나 어긋남으로 해서 문의 작동이 원활치 못하게 되고 잠금장치가 맞지 않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출입문은 특별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출입문 지주는 지하로 적어도 50cm 정도는 굴착하여 콘크리트를 매설하여 지주대를 설치함으로써 흔들림이 없게 하고 와이어나 철망을 이용하여 사슴이 가시적으로 내외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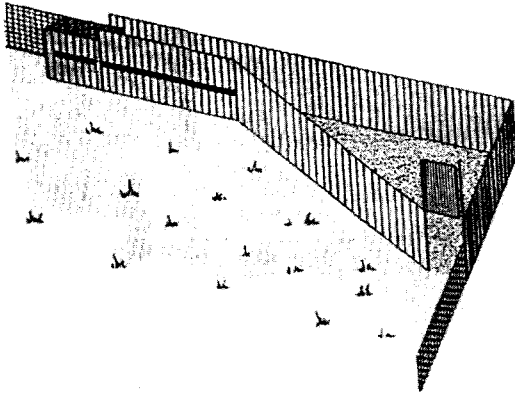
한편 출입문의 개폐 방향도 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필요에 따라 출입문의 개

폐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구마다 출입문이 설치되면 관리작업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고 이동관리도 간편해 질 수 있다.

7) 물이장

슬라이드식 문을 갖고 있는 물이장의 설치운용은 사슴을 보정틀로 유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물이장은 보통 목재로 만들어지는데 이곳으로 유도된 사슴은 매우 좁은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외부의 자극이 전달되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물이장에서 사슴이 체위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좁게 만들어 주고 물이시설로의 유도로는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 준다. 양옆은 밀폐시키되 위부분은 개방시키는 것도 사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의 양육현장에서는 기존의 통로나 이동로를 이용하여 사슴을 유도시키는 개방식의 물이장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다(그림



〈그림 1〉 기존의 헨스시설을 이용한 물이장

1). 이를 위해서는 각 목구마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슴의 이동이 용이하여 물이장으로의 유도가 간편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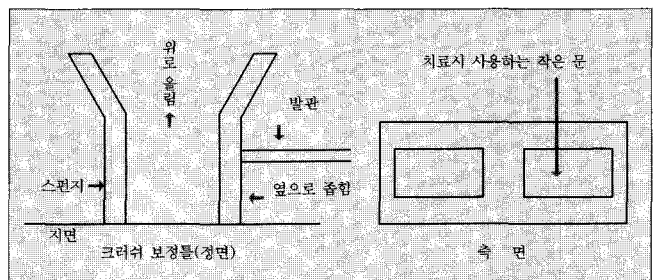
8) 보정시설

우리 나라의 양육업은 외국과는 달리 녹육생산이 주가 아니고 녹용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녹용채취 적기가 되면 절각작업은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절각작업을 위해서는 사슴을 보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요구되는 시설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의 절각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절각작업을 수행하는 양육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영세농가가 많기 때문에 마취제에 의한 보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 방법은 사슴에게 심한 충격을 줄 수 있고 또한 마

취제에 대한 관행적인 경험으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절각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적절치 못한 마취제에 의한 사고 발생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절각작업과 치료 등을 행할 수 있는 사슴용 전문 보정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보정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함정을 하고 그 위에 발판을 덮어 사슴을 그곳으로 유도하여 발판을 밑으로 떨어뜨려 사슴의 발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로프에 걸치게 하는 함정식 보정시설과, 이와는 반대로 로프나 밴드를 사슴의 가슴에 걸쳐 위로 들어올릴 후 사슴의 발이 지면에 닿지 못하게 하여 사슴을 보정시키는 상향식 보정시설, 함정식 보정시설에서 지면의 발판을 갑자기 제거함으로써 사슴이 밑으로 떨어질 때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를 보완하여 발판을 천천히 밑으로 내리는 하향식 엘리베이터식 보정시설과 사슴이 로프에 걸리는 충격을



〈그림 2〉 크러쉬방식의 보정시설

줄이면서 사슴을 보정하기 위해 옆에서 압력이 가해져 몸통 전체가 완벽하게 고정되는 크러쉬 방식(그림 2) 등이 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사슴 사육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크러쉬 보정방식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 최근에는 크러쉬 방식을 보완하여 최신식의 보정시설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녹용뿐만 아니라 녹혈도 주 소득원이 되고 있어 녹혈의 채취도 빼 놓을 수 없는 작업인데 이런 보정시설에서는 녹혈채취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보정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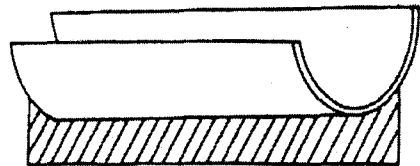
9) 급이 및 급수시설

사슴장 내부에는 충분한 사조와 급수시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지붕이 설치된 틈새형 사조(그림 3)의 제공은 아주 좋은 사양관리가 가능했다는 외국에서의 예가 있었는데 지붕이 있으므로 해서 제공된 건조나 사일리지와 같은 조사료와 농후사료가 외부 기상조건에 따른 변화를 줄일 수 있고 특히 틈새형 사조의 하단부에 농후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조는 틈새 사이로 사슴들이 사료를 빼낼 때 바닥으로 사료의 일부가 떨어져 허실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과 틈새 사이가 좁을 경우 개체간 서열차이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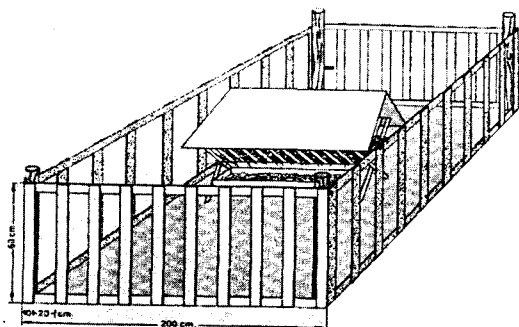
〈그림 3〉 사슴용 사조(조사료용 풀시렁 및 농후사료용 겸용)



〈그림 4〉 하수관을 이용한 간이 사조

해 서열이 약한 개체의 채식량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개체간의 간격을 30cm 정도로 계산하여 사조를 설치해 주면 채식량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사조로 활용하거나 콘크리트 배수관을 이용하여 사조로 제공하고 있는데(그림 4) 가능하면 벽돌 등으로 영구적인 사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사조의 청소가 가능하도록 사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번식록사에는 자육용의 사조를 (Creep feeder, 그림 5) 별도로 설치해 주면 자육의 성장발육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성장기의 자육은 어미



〈그림 5〉 자육용 사조(Cree Feeder)

와 같이 사육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자육용 사조가 없으면 어미 사슴에게 밀려 충분한 사료채식이 안되기 때문에 자육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육용의 사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육들이 자유롭게 많은 양의 사료를 채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급수기는 언제나 충분한 양의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수기의 양과 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급수기내의 수위에 따라 신선한 물이 자동적으로 보충되는 시설을 설치하면 좋으나 여건이 좋지 않으면 페타이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급수기 설치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겨울철은 혹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제공된 물이 얼어 사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겨울철의 혹한기에는 사슴들이 물의 섭취가 제한되는 관계로 체내에서의 대사과정에 이상을 가져와 요결석과 같은 질병 등도 흔히 발생하기 쉬우므로, 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는 급수기내의 동결방지를 위해 값싼 열선을 넣거나 우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온급수기 및 FRP와 같은 단열재로 만든 물통을 제공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수기를 설치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급수기 설치가 견실하지 못하면 사슴들의 장난으로 급수기가 파손되거나 급수기안의 물이 더럽혀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파이프나 콘크리트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 주고 수시로 급수기 청소를 할 수 있는 급수기의 설치가 요구된다.

10) 사슴장내 은신처의 설치

일반적으로 집약적인 사육하에서는 대부분 사슴장을 지붕이 없이 개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여름의 그늘 제공이 어렵고 또한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사슴장 바닥이 분노와 섞여 매우 지저분해지고 사슴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므로 강우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 이 시기는 비교적 암사슴들이 자육출산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와의 맞물리기 때문에 지붕이 없어 은신처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생자육의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전체적인 지붕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통로와 사육장 일부만이라도 지붕을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양육**

〈자료: '21세기 농촌의 희망, 사슴사육' 세미나〉